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음 1월 21일) 제223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불법폐기물 3만8000톤 처리 총력전

전북도 전수조사 결과

환경부 7만8000여톤 보다

4만톤 적어... 도, 수정 요청

원인자 처리 원칙 행정집행도

시·군과 공조 예방책 마련

지난 21일 환경부에서 전북도 불법 폐기물이 7만8000여톤으로 발표했으나 전북도에서 전수 조사한 결과와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최근 발생한 군산시 불법 폐기물의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폐기물 전수조사한 결과 3만8000톤으로 파악했다.

도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불법폐기물의 수치를 바로 잡아 줄 것을 환경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여러 부서에서 조사한 자료를 분류 과정에서 일부 중복 등 오차가 발생한 것이라며 추후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계없이, 전북도는 이번 조사된 3만8000톤의 불법폐기물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폐기물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를 파악하여 원인자 최우선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원인자 및 책임자 등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원인자 파악 등을 위해 도 및 한국폐기물 협회 등 4개기관으로 구성된 불법폐기물 대응체계반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발생하는 불법폐기물 예방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강화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을 통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 업체는 추가 반입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

선과 폐기물 업체의 처리이행 보증 강화 등을 신속한 조치를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방치폐기물 우려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시군과 합동으로 수시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폐기물

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그 밖에, 불법폐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399억원을 투입하여 소각시설 설치 2개소, 매립장 설치 및 정비 등 5개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북도 김용만 환경복지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로 확인된 방치폐기물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 신속히 처리하고, 불법폐기물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대학교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22일 삼성문화회관에서 성황리 거행됐다.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하늘 위로 던져 올리고 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북대학교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22일 오전 10시 삼성문화회관에서 성황리 거행됐다.

김동원 총장을 비롯해 전임 총장, 이용규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박사 127명을 비롯해 석사 708명, 학사 2,779명 등이 학위를 받았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전 과정이 실황 중계됐고, 외국인 학생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각 국가의 국기도 게양

전북대,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거행
3614명 수여... 김동원 총장 '도전·열정' 강조

돼 행사 분위기를 돋웠다. 또한 간호대에서는 고유의 졸업 행사인 핀 수여식이 열렸고, 법학전문대학원과 고창캠퍼스 농생명과학과 등도 학위수여식 행사를 열어 새 길을 나서는 졸업생을 축하했다.

김동원 총장은 이날 졸업식사를 통해 도전정신과 열정을 갖고, 모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는 인재가

돼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장은 "사회의 소중한 밑받침이 되기 위해 건지밭에서 학업과 연구를 지속해온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며,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한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갖고 모교와 지역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데 그 중심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동계체전 21년 연속 종합 4위

바이애슬론 4관왕 최윤아, 대회 '최우수 선수' 선정



최윤아

제100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 선수단이 21년 연속 종합 4위라는 대기록 달성과 함께 역대 최초로 전북 선수가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는 경이사를 맞았다.

지난 22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서울과 강원 등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전북 선수단은 종합 4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1년 연속 종합 4위를 차지한 것이며 전북 체육의 위상을 다시금 높인 것이다.

전북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선수와 임원 등 총 324명(선수 198명·임원 126명)이 출전했고 총 63개(금 21개·은 21개·동 21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특히 효자 종목인 바이애슬론에서 금메달 15개 포함 총 40개의 메달이 쏟아져 나오면서 종합 4위 달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또 쇼트트랙과 피겨, 스키, 컬링 등 종목에서도 메달 사냥에 성공하면서 전북이 종합4위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

한국 바이애슬론 기대주인 최윤아(무주고)는 바이애슬론(개인경기·스프린트·계주)과 크로스컨트리(프리)종목에서 총 4개의 금메달을 획득, 대회 4관왕에 오르는 기업을 토해냈다.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 종목을 넘나들며 메달을 획득해 '철인 소녀'라는 별명을 갖게 된 최윤아는 이번 대회를 가장 빛낸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동계체전에서 전북 선수가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것은 역대 최초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귀화 선수인 바이애슬론의 랍신 티모페이(전북바이애슬론연맹)는 3관왕에 올랐고 같은 종목의 정영은(무주중)과 김가은(안성중), 김혜원(무주초) 등은 2관왕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대진추첨 결과 1~2회전에서 강팀을 만나 어려움이 예상됐던 컬링 종목에서도 선수들의 선전으로 귀한 2개의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장은성 기자

'특례시 지정 시민 힘으로'

전주시, 지혜의 원탁 개최

광역시가 없어 소외됐던 전북 발전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전주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데 전주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2일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완산구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로 답대한 전주, 더 전주답게 세계 속으로!'를 주제로, 전주 시민들이 전주 특례시 지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는 '2019 완산구 지혜의 원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련사진 4면)

김승수 시장은 이날 수도권과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격차해소와 지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역시가 없는 전북

의 중심도시인 전주의 특례시 지정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시장은 또 지난 1994년 전주가 직할시로 승격되지 못한 이후 타 지역과 벌어진 격차에 대해 설명하고 전주 특례시 지정이 전주발전을 이끌고 그간 국가예산 등 정부 지원 과정에서 한 개 뿔을 받은 전북이 두 개 뿔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참석한 완산구민들은 함께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 퍼포먼스를 통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정기준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 특례시 지정이 이뤄지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한편, 시는 25일에는 국회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를 개최한다.

/송호철 기자

매일 INDEX
2·3면 -한·인도 정상회담
4면 -전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